



아니 벌써! 비치발리볼 시즌이...

14일 오후 서울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에서 열린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월드컵'에 참가한 브라질 선수가 경기전 몸을 풀면서 스파이크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지애 더이상 '뒷심부족' 없다 안선주



지난 11일 일본투어에서  
연장 5개홀 접전끝 분투

신지애는 일본여자프로골프 샬롱파스 컵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후쿠시마 아키코(일본)와 연장 5개홀까지 가는 접전 끝에 준우승에 머물렀고 안선주도 같은 날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 열린 KB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대회에서 1.5m짜리 파퍼트를 놓치는 바람에 연장전으로 끌려가 우승컵을 조아람(23·ADT캡스)에 넘겨 줬다.

대회 3연패를 눈앞에 뒀던 안선주는 눈물을 펄펄 쏟으며 아쉬워 했다. 따라서 16

### 한국여자오픈 내일 개막

한국여자프로골프 신지애(20)와 안선주(21·이상 하이마트)가 태영배 제22회 한국여자오픈에서 우승에 도전한다. 하이마트 골프팀의 원투 펀치 신지애와 안선주는 공교롭게도 11일 끝난 대회에서 우승을 눈앞에 뒀다가 연장에서 패해 분투를 삼킨 바 있어 어느 때보다 정상 등극에 대한 집념이 강하다.



KLPGA KB스타투어서  
조아람에 막판 추월당해

우승컵을 들어 올린 만큼 자신감이 넘친다. 그러나 우승의 기쁨은 한 사람의 몫이다.

이들의 우승 길목을 막아설 선수로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베테랑 쥘리 잉스터(미국)가 꼽힌다. 올해로 48세가 되는 잉스터는 LPGA 투어에서 통산 31승을 올렸을 뿐 아니라 올 시즌 셀그롭 챔피언십에서도 준우승을 하는 등 녹슬지 않은 기량을 뽐내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 '골프여제' 소렌스탐 전격 은퇴 선언

### 올 시즌 마치고...내년 봄 결혼 예정

'영원한 골프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사진)이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함으로써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됐다.

소렌스탐은 14일(한국시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사이베이스 클래식에서 열린 뉴저지주 클리프톤 여퍼 폰트클레어 골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소렌스탐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선수였던 제리 맥기의 아들 마이크와 내년 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1994년 LPGA 투어에 데뷔한 소렌스탐은 2006년까지 LPGA 투어 69승을 기록했고 이중 메이저대회 우승만도 10차례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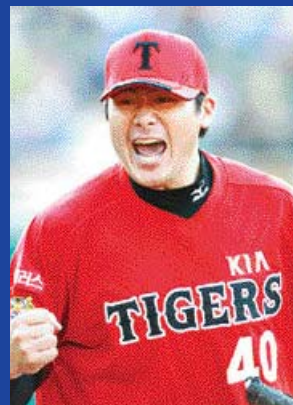
또한 최우수선수상도 여덟차례나 받았고 최저타수를 친 선수에게 주는 베이트로피 수상만도 여섯차례나 기록했다.

하지만 영원한 강자는 없는 법. 소렌스탐은 헤섯처럼 등장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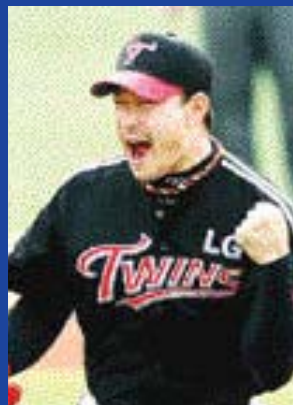
에게 2006년 세계 랭킹 1위를 내주더니 2007년에는 목과 허리 부상에 시달리면서 데뷔 이후 처음으로 LPGA 투어 우승컵없는 한해를 보냈다.

소렌스탐의 시대는 끝났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지만 2008년 개막전 SBS오픈에서 우승한 뒤 스탠퍼드 인터내셔널 프로암에 이어 오초아와 맞대결을 벌인 미켈폴몰트리아온까지 제패하면서 완벽한 부활을 알렸다. 옛 여제와 새로운 여제의 대결로 골퍼계는 흥분했지만 소렌스탐의 갑작스런 은퇴 선언으로 팬들은 컴퓨터 아이언샷을 볼 날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아쉬워 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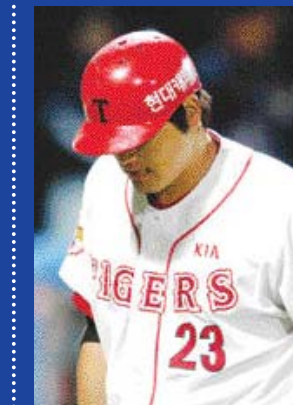
## 상승세 '웃고' 돌아온 빅리거 2군행 '울고'



KIA 서재응



LG 봉중근



KIA 최희섭



두산 김선우

'한국 프로야구에 울고 웃는 빅 리거' 한국인 '빅 리거'들이 속속 국내 무대로 복귀하면서 프로야구에 볼거리가 더해졌다.

올 시즌 가장 팬들의 관심을 끈 선수는 서재응(KIA)과 김선우(두산)다. 메이저리그 통산 28승 40패의 서재응과 13승 13패 김선우의 한국행은 밤잠 설쳐가며 이들의 경기를 지켜보던 야구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빅 뉴스였다. 이들은 지난 4월1일과 2일 나란히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컨트롤의 마법사' 서재응은 1일 두산을 상대로 6이닝 5피안타 3탈삼진 1실점으로 성공적인 피칭을 했지만, 한 점도 뽑지 못한 팀 타선 탓에 고스란히 패전투수가 됐고 팀은 3연패에 빠졌다. '싸니' 김선우는 2일 이닝 동안 7피안타 4실점으로 못매를 맞으며 첫 패를 기록했다. 이날 KIA는 3연패를 끊고 시즌 첫 승을 올렸고, 두산은 이날 패배 이후 6연패에 빠졌다.

김선우는 팀이 6연패를 당하던 4월 8일 한화전에서 6이닝 5피안타 3실점(2자책)으로 호투했지만 3-4로 또 다시 패전투수가 되며, 팀 연패의 시작과 끝을 장식했다. 결국 김선우는 지난달 13일 LG전에서 겨우 2와 3분의1이닝만 채우고 2군행 짐을 싸야 했다.

서재응도 힘든 4월을 보냈다. SK를 상대한 두 번째 등판에서 서재응은 8이닝을 1실점으로 틀어막고도 첫 승을 신고하지 못했



상위 P-리그 프로야구

다. 팀은 1-2로 패했다. 타선의 계속된 부진과 호흡을 맞추던 김상훈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1점대를 유지하던 평균자책점은 다음 3경기에서 6.18까지 뛰어 올랐다.

하지만 서재응은 지난달 29일 5전 6기 끝에 두산을 상대로 첫 승을 신고한 뒤, 지난 10일 우리전에서 컨트롤의 진수를 선보이며 2승을 챙겼다. 낯선 스트라이크 존과 선수들에 시행착오를 겪은 서재응은 점차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1군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김선우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년차 새내기들의 모습도 탄탄하다. 지난 시즌 '빅 초이' 최희섭(KIA)과 '닥터 봉' 봉중근(LG)은 프로야구 물풍선의 주역으로 손꼽혔다. 하지만 최희섭은 복귀와 동시에 늑골부상을 당해 52경기밖에 뛰지 못했다. 봉중근은 5.32의 평균자책점으로 6승7패로 패가 더 많았다.

팬들의 기대와 달리 최희섭은 올 시즌 두투으로 전지훈련을 소화하지 못하고, 급기야 지난 12일 허리 통증으로 2군에 내려갔다. 33경기에서 타율은 0.208.

올 시즌 첫 경기를 승으로 장식한 봉중근은 9경기에서 나서 3.71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최하위에서 맴도는 팀 성적 탓에 3승5패를 거두었지만 지난 11일 류현진과의 맞대결에서 8과 3분의 1이닝동안 4피안타 5탈삼진 1실점으로 팀의 9연패를 끊으며 '영웅'으로 떠올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